

# 글로벌 AI

##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강한 AI 수요를 창출

- AI 컴퓨팅 수요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관련 주식 급락
- 메타의 자체 컴퓨팅 수요는 구글이 사용량을 제한할 정도로 강함
- 소셜 데이터 기반의 신규 수익화 전략으로 봐야함

### 헤드라인이 만든 우려

메타(Meta Platforms)가 잉여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컴퓨팅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동반 급락했다.

우리는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는데, 1) 메타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상당부분 구글 Gemini로 이전했고, 구글이 그 사용량을 제한할 정도로 수요가 강하며; 2) 메타의 신규 클라우드 사업은 잉여컴퓨팅 자원의 활용 보다는, 메타 고유의 소셜데이터를 수익화 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 메타의 자체 AI 수요는 너무 강하다

메타의 자체 AI 모델(Llama) 경쟁력은 구글의 Gemini에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메타의 고성능 AI 수요 상당 부분이 구글 Gemini로 넘어갔고, 그 규모가 너무 커지자 구글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는 전체 AI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메타 스스로 AI 모델의 성능에 맞게 자사 모델과 외부 모델간 컴퓨팅 수요를 배분한 것으로 봐야한다.

### 메타의 클라우드는 소셜 데이터 수익화를 위한 전략

우리는 메타의 클라우드사업 진출 역시 잉여 컴퓨팅 자원을 파는 것 보다는 메타가 보유한 소셜 데이터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세계 36억명 이상의 소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AI와 결합해 광고주의 ROI를 개선해 주면서, 메타는 광고 단가(+12% YoY)와 노출량(+16% YoY)이 동시에 상승하는 '골디락스'를 향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메타가 구글, AWS 등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와 정면승부 하기엔 승산이 낮다. 그러나 수십억 명의 소셜 그래프·행동 데이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 타게팅·추천 엔진을 클라우드와 결합하면, 단순한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라 마케팅에 특화된 버티컬 클라우드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자산을 수익화하려는 적극적 확장이며, 오히려 전체 AI 컴퓨팅 수요를 늘릴 것이다.

종합하면, 'AI 수요 약세' 우려는 과도하다. 메타의 클라우드 진출은 1) 자사 컴퓨팅 수요를 모델 성능에 맞게 배분하고, 2) 데이터 기반의 신규 수익화 전략으로 봐야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